



〈메시아를 고대하며〉 김옥순 수녀 작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3-6)

[제1독서]..... 바룩서 5,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2ㄴ-3,4-5,6
(◎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피서 1,4-6,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루카 3,1-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481] 요르단 강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사 40,3-5)

루카 복음 저자는 세례자 요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는 빌라도, 갈릴래아 영주로는 헤로데, 대사제로는 한나스와 카야파라고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즈카리아의 아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지방들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자신의 신원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예언서 40,3-5을 인용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루카 3,4)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배를 떠난 백성들을 위로하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지에서 희망을 잃고 암울한 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들라는 희망과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이국땅에서 굳게 믿고 견디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인간의 영화는 들꽃같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펼치며 오시지만, 그분은 양들의 목자처럼 어미 양을 조심스레 이끄시며 새끼 양을 품에 안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한탄하던 바룩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희망을, 유배를 떠나던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바룩 5,6) 바룩 예언자도 이사야의 표현처럼 하느님 오시는 길을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7절)고 준비시킵니다.

주인공이나 영웅이 되기를 희망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을 위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배웁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에게서 낮아지는 삶을 배우려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찬양드릴 수 있게 되기를’(필리 1,11)바란다고 전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그리스도께서는 커지셔야 하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고 고백한 세례자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대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Father Chung's Homily

“A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Desert”

The Gospel of Luke explains in detail about the historic background of John the Baptist's era. The Luke says that, in John's time, Pontius Pilate was governor of Judea, Herod was tetrarch of Galilee, and Annas and Caiaphas were the high priesthood. John the Baptist, the son of Zechariah, went throughout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He called himself as 'a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desert' and, citing the Prophet Isaiah, sai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his paths."

The Prophet Isaiah delivered the messages of comfort and salvation to the Israel people, who were suffered from exile in Babylon. The God never forget his people and give them the hope of salvation. The message encouraged them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which was the way of hope. The Prophet reminded them the word of the Lord would be never changed and be completed as promised.

The Prophet Baruch also delivered the message of hope to the Israel people: "Led away on foot by their enemies they left you, but God will bring them back to you carried high in glory as on royal thrones." Baruch said the similar message to them, "The valleys be filled to make level ground and Israel may advance securely in the glory of God."

Unlike most of people in our world, who want to be famous or become heroes, Christians must always learn how to be humble and to lower themselves. During this Advent season, we must learn the humbleness from the life of John the Baptist. Paul the Apostle said that he prayed that we were to b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ame through Jesus Christ for the glory and praise of God.

John the Baptist confessed that Christ must get bigger and greater, and he himself must get smaller and humbler. We must follow John's faith and his way of life. It is the life of love and sacrifice. Let's pray for the poor and share our love during this meaningful Advent season.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다. 대림시기 중이지만 이 날은 대축일로서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찬미이며, 그분을 통하여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기뻐 환호하는 것이다.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모님은 그리스도를 수태하시는 궁전이시기 때문에, 탄생은 물론이고 잉태될 때에도 원죄 없으신 것이라고 신앙은 이해하고 있다. 하느님이시며 왕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열 달 동안이나 몸속에 모실 분이시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에 물들이 없는 깨끗한 몸이셨다는 것이다. 곧 예수의 탄생을 잘 준비시키려고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은총으로 도우셨다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향한 교회의 신앙고백이 바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이다.

뱀의 유혹에 빠져 원죄를 지었지만(제1독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구세주 잉태의 소식을 전하며 기쁨이 왔으며(복음),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려고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으셨다(제2독서)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찬미한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설명되지 않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구원계획에 맞추어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는, 축일들을 지냄으로써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한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나기정 신부, catholic.or.kr)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뮈리요



자비의 특별/희년

2015년 12월 8일 ~ 2016년 11월 20일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12월 8일(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 기념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됩니다. 세계 교회는 자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루카 복음 6장 36절을 참조한 모토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Misericordes sicut Pater)는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넘치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요청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의 본모기를 따르라는 초대이다(루카 6,37-38 참조).

루프니크 신부(Fr. Marko I. Rupnik)의 작품인 이 로고는 구원으로 강생의 신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이 로고는 착한 목자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인간의 육신을 깊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착한 목자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드러내시며 인류를 어깨에 짊어지시는 가운데, 당신의 눈과 아담의 눈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눈으로 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 각자의 인성,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세 개의 타원형은 작은 원에서 더 큰 원으로 나아갈수록 그 색깔이 밝아져서, 인류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꺼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안을 향해서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주일의 성경 퀴즈

성경 퀴즈 정답은 6면에 있습니다.

루카 복음 3,1-6

¹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라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²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에게 내려다.

³그리하여 요한은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을 위한 ○○의 ○○을 선포하였다. ⁴이는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의 ○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 내어라. ⁵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⁶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을 보리라.”



사랑하는 당신 야고보

드디어 당신을 새 이름, “야고보” 라 불렀네요. 결혼 생활 45년만에 처음으로 바꿔 부른 호칭이라 좀 어색하지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느낌은 우리가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약속 같아요.

10월 22일 저녁, চাল고식을 위해 신부님을 만나뵈러 가던 날 생각하세요? 퇴근시간이 한창일 때라서, 조심 조심 운전해 가고 있을때, 갑자기 차 한 대가 위험하게 우리 앞으로 끼어들어 왔었죠.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며 짜증을 냈지요. 그때 운전하던 당신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주님의 기도문을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해야겠지?”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었지요. 그리고 나니, 놀랍게도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당신이 교리 공부를 하며 성경과 종교서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많아지는 듯하여,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চাল고식 가던 그 날 다른 운전사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보면서 당신이 저보다 먼저 신앙인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 같아 정말 기뻐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서 있을 때, 차 앞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저녁노을 빛이 너무 예뻐서, “저 하늘 좀 봐요! 참 아름답네요” 하니,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아름답네’ 하며 끝나는 반면, 다른 부류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그 많은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 특히 장대하고 정교한 성당들을 보고 다니면서도 한번도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더군요. 그저 “와! 아름답다” 하고 사진 찍기에만 바쁜 나머지 화려한 걸모양에만 정신이 팔려 속빈 강정처럼 행동했었네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려라”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 그 말대로 살고자 했는데, 가족과 부모형제, 친한 친구와 가까운 이웃에만 관심을 뒀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하느님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하느님을 정점에 두고 관심 영역을 넓혀서, 매일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야고보! 이제 우리 삶의 세계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네요. 매사에 꼼꼼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당신이지만, 앞으로는 하느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믿고 삶이 무거울 때면 하느님께 의지하도록 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깊어지길 기도하며.

나비 사비나

여보, 사비나!

놀랍지 않소? 내가 예비신자 교육 과정을 시작한 지 채 일년도 못되어, 이전 미사 때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성가를 열창하고 있으니 말이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월 1일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후 선배님

부인이, “우리 성당에서는 75세 넘는 사람은 시험치르지 않고도 영세받을 수 있다 하네요 신부님을 찾아 보세요.”

내가 “그래요? 잘 됐네요. 새해 첫 날에 좋은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당신은 벌써 내 마음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소. 그 몇 달 전, 그 선배님 부부와 영세 절차에 관해 얘기 하던중, 내가 농담 70%, 진담 30% 로, “75세 넘는 노인들이 어떻게 교리를 다 익혀 암기한 후 시험에 통과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영세시험이 면제된다면 저희도 영세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지 않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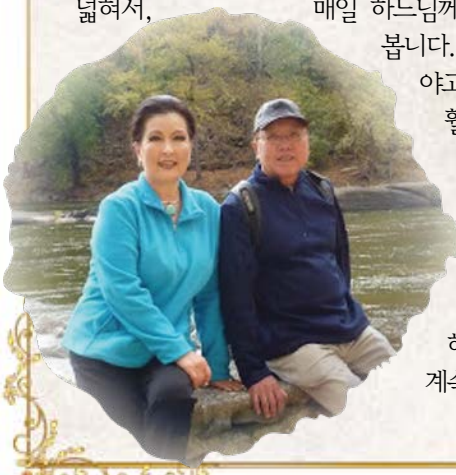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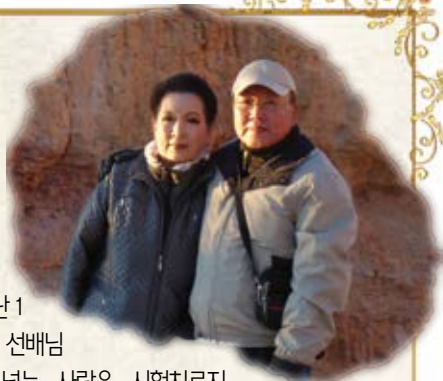
사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그 선배님 부부를 따라 일년에 4-6회 씩 미사에 참석해 왔으나, 불교 집안에서 자란 우리에게 영세받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소. 나는 좀 망설였지만, 낙천적인 당신은 벌써 방향을 잡은 듯 했소. 그래서 정식 교리공부 과정을 밟기로 하였고, 3월 초부터 8개월에 걸친 교리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소? 생전 처음 당신과 같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것이 내겐 큰 기쁨이었소. 굳어진 머리로 생소한 종교 이론을 흡수하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생각과 사실들이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했지요. 한편, ‘신비로운 것’ 이기 때문에 그저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 감각 기관으로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았소.

또 생각나오? 내가 천주교 신앙 생활을 오래한 친자에게 서로 상반된 듯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 계속 질문했더니, 그가 “왜 자주 바리사이 율법학자 같이 되려 하지요?” 라며 반응했던 일일? 그렇소. 바로 내 자존심과 오기, 즉 오만이었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면서도 한갓 인간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소. 마음 속에 오만이 가득 찼으니 무엇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겠소?

이제 알듯도 하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당신이 감사생활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하느님을 알려면, 맨처음 할 일이 내 마음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비워내는 일이라고.

돌이켜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전 계획도 없이 천주교 입문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듯 하니, 놀랍지 않소? 요즘 나는 미사중 우렁찬 성가대 합창과 함께 ‘주님의 기도’ 를 노래할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려서 조금 당황한다고 우리가 처음 만난후 반세기 가까이, 당신은 항상 당신 특유의 적극성과 낙관적인 자세로 내 힘이 되어 주었고, 특히 이번 천주교 입문과정에서 내가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소. 당신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내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한다고. 당신과 나, 이제 사랑이신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그 분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그 분을 더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오.

나비 야고보





2015 Turkey Bowl

CYO Enjoyed and We are Proud of Them



On November 28, members of CYO competed at the annual KYSPC Turkey Bowl after practicing for nearly 2 months for this event. The girls' team found little success that day, recording no wins and had an early exit in the playoffs, losing to the eventual champions. Despite this, the girls kept several games close and showed that some of their preparation had paid off.

tion had paid off.

On the other hand, the boys team entered the playoffs with the number 1 seed after finishing pool play undefeated. Unfortunately the boys lost in the semifinals, but at the end of the day had a lot to be proud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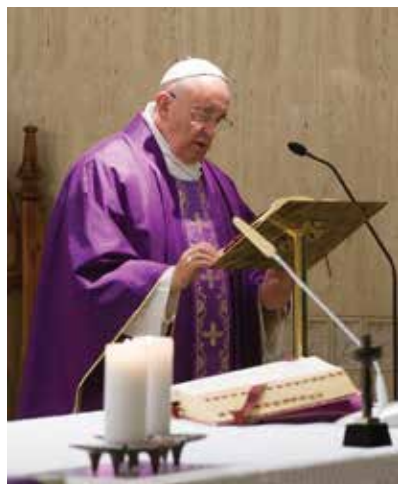


All of the success that our CYO teams had could not have been made possible without the help of the coaches and parents who showed an incredible amount of support both leading up to the day as well as during the event itself.



Let's Learn Liturgy

Why does the priest wear **PURPLE** during Advent?



The Church's liturgical norms do prescribe specific vestment colors for various celebrations. The purpose of utilizing different colors for vestments is twofold: first, the colors highlight the particular liturgical season and the faithful's journey through these seasons. Second, the colors punctuate the liturgical season by highlighting a particular event or particular mystery of faith.

Violet or **purple** is used during Advent and Lent as a sign of penance, sacrifice and preparation. At the midpoint of both of these seasons—Gaudete Sunday (the third

Sunday of Advent) and Laetare Sunday (the fourth Sunday of Lent—rose vestments are traditionally worn as a sign of joy: we rejoice at the midpoint because we are half-way through the preparation and anticipate the coming joy of Christmas or Easter. Some liturgists, particularly in the Episcopal Church, have introduced the use of blue vestments during Advent as a way of distinguishing this season from Lent; however, no approval for blue vestments has been given for the Catholic Church. Purple vestments may also be used for Masses of Christian Burial or Masses for the Dead.

ANNOUNCEMENTS

CCD CHRISTMAS SPECIAL

Sunday, December 13th
1:30 - 3:00 PM at the Gym

1

Work Camp Meeting

- When: Dec 13th, 11:30 AM
- Where: Hasang building #106

2

CYO Retreat

- When: Dec 18 to 20th
- Where: Camp High Road
- Fee: \$50 / child
- Registration Deadline: Dec 6th

Parish Web Bulletin:

Please visit the **Youth Ministry bulletin section** on our parish web site. The bulletin board will be utilized to inform you upcoming events, any unscheduled school closure due to inclement weather, and etc.



“3초의 여유를 갖고 삼시다” M.E. 월례회

M.E.의 11월 월례회가 지난 달 28일 박원균 암브로시오, 콜롬바 부부 집에서 16명의 회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참가자들은 ‘3초의 여유’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3초의 여유를 가지는 삶을 실천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여유로운 삶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참가자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관계에서 어떻게 3초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며 여유로운 삶을 나누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진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동중부 지역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회복의 영

제 1 회 미 동중부 지역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가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본당의 12명 신자를 포함, 동중부 지역 5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의 일정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Holy Trinity Spiritual Center에서 열렸다. 이번 성령 세미나에서는 빈센트 팔로티 U.A.C. 수도회 소속의 김태광 (아오스딩) 신부가 ‘자비의 영과 회복의 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신부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라는 에제키엘서 36장 26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 존재에 자비의 영과 회복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주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가르침과 안수를 통해 그동안의 낡은 영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맞맞은 모습으로 새로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



대림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과 꿈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타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교통법규 세미나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통법규 세미나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제: 새로운 교통법규/벌금 법정 해결/ 일반 법규 상식
- 일시: 12월 13일 오전 11:30- 오후 1:00
- 장소: 친교실 A-1,2
- 강사: 로이 최(Fairfax County 경찰)

✝ 성경 퀴즈(3면) 정답 : 광야, 요한, 요르단, 용서, 회개, 세례, 이사야, 주님, 길, 곧게, 구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전 신자 대림 특강

- 일시: 12월 8일(화)~10일(목) 오후 8시~10시, 성당
- 강사: 전광진 (엘마노) 신부
- 내용: 12월 8일 (화) 한국천주교회 역사 (대축일 미사 후)
12월 9일 (수) 성사 생활 (오후 8시)
12월 10일 (목) 선교와 봉사의 삶(오후 8시)

2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12월 16일(수) 오후 3시~오후 5시
오후 7시~오후 9시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 12월 8일(화) 오후 7:30
- 의무 대축일입니다.

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12월 6일(일) 오전 11:30 (B-1,2)

5 베드로회 월례회

- 일시: 12월 6일(일) 오후 12:30 (A-1,2)

6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2월 6일 (일) 오후 1시 (A-3)

7 청소년 사도회

- 일시: 12월 6일(일) 오후 1시 (B-3,4)

8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12월 6일(일) 오후 6시 (친교실)

9 하상 성인학교 2015년 가을학기 전시 및 공연 안내(문화부 협조)

-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많이 참석 하시어 즐겁게 관람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2월 6일(일) 오전 11:30
- 장소: 본당 친교실
- 전시: 덧상, 서양화, 동양화, 손뜨개
- 발표: 창구, 기타, 한국무용, 라인댄스
- 문의: 김명희 올리나 교장 (703) 217-2775

10 주일학교 교사 및 가족 송년 모임

- 일시: 12월 6일(일) 오후 6시 (하상관)

11 파티마 세계 사도직

- 일시: 12월 11일 (금) 오후 7:30 미사 후
- 봉헌식 후 간단한 다과가 있습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6일(일)	대림 제2주일	구역임원 교육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 (13:00, A-3), 청소년 사도회 (13:00, B-3,4), 베드로회 (12:30, A-1,2),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18: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 종강 및 발표 전시회, 주일학교 교사 및 가족 송년모임 (18:00, 하상관)
7일(월)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아침미사 (6:00, 성당)
8일(화)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대축일 미사 (19:30), 전광진 신부 대림 특강 (20: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 (20:00)
9일(수)	성 요한 디다코(후안 디에고)	레지오 (9:30, 친교실), 전광진 신부 대림 특강 (20:00, 성당), 성경학교 휴강
10일(목)	대림 제2주간	아침미사 (6:00, 성당), 전광진 신부 대림 특강 (20:00, 성당)
11일(금)	대림 제2주간	CLC (8:00)
12일(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공동체기도회 (20:00), 재속 프란치스코 (8:00)
13일(일)	대림 제3주일	단체장회의 (11:30, B-1,2), 복사단 모임 (12:40, B-1,2), 꼬미시움 (13:00, B-3,4), 주일학교 학예회 (13:30, 체육관), 바오로회 연말파티 (13:00~22:00, 친교실)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학교
8:00 AM 10:00 AM 11:40 AM (English Mass)	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7:00 AM 7:30 PM	6:00 AM	7:30 PM	11:00 AM	6:00 AM 7:30 PM	주일 10:00 AM

12 공동체 기도회

- 12월 둘째 토요일(12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각 공동체별 지정 장소에서 오후 8시에 실시되니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3 주일학교 학예회

- 일시: 12월 13일(일) 오후 1:30~오후 3시 (체육관)

14 바오로회 송년파티

- 일시: 12월 13일(일) 오후 6시~10시 (친교실)

15 베드로회 연말파티

- 일시: 12월 19일(토) 오후 6:30 (종미반점)
- 문의: 김 요안나 (571)334-5817

16 요한회 송년의 밤

- 일시: 12월 18일 (금) 오후 6:30, 강대성 요셉 형제막
- 50대 교우(부부 동반) 571-239-8374

17 꾸르실로 송년 올드레아

- 12월 19일(토) 오후 4~ 12시 (친교실) • 회비: \$20
- 문의: 서종원 베드로 (571) 213-2942

18 K of C 송년회

- 일시: 12월 20일(일) 오후 5시~ 9시
Montclair Country Club
- 문의: 주홍식 도미니코 (703) 740-7819

19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성탄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 분은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조 모니카 제대회장 (703) 264-0050

20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첫영성체 받은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신청: 12월 27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21 2016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

- 2016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을 받습니다.
- 매일미사: 1년분 \$53 (tax 포함)
- 병초 1박스 \$48 (tax 포함), 봉헌초 \$25

22 청국장 가루 판매

- 청국장 가루를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청국장 가루 판매중에 있습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2월 10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은빛시대**: 비전향 장기수의 행복한 이웃 사랑. 민족 분단이 남긴 또 하나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30여년 장기수의 사랑 나누기
- **신앙의 재발견**: 평신도 사도직과 신앙생활 / 송인순 수녀

12월 11일(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구약 강좌/
2015 가을학기 마지막회

동전 모으기 저금통 배부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현관 입구에서 배부하니 한 가정이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 (1월 3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5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주일헌금	\$7,228.00
교무금	\$14,365.00
교무금(신용카드)	\$4,560.00
특별헌금	\$0.00
2차 헌금	\$0.00
합계	\$26,15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전례 및 청소 담당

12월 6일	비엔나1
12월 13일	비엔나2
12월 20일	스프링 필드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김 수산나, 권 모니카, 고상균(스테파노), 박병태(요셉),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김경화,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민복(아네스), 이수은(레나타), 김태명(시몬),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박제중(요셉)

♥ 군 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범창(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용수(자시와),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전성호(세례자 요한),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마카렐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우 비즈니스 광고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대박 월드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속옷), 신발 배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혜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융자, 재융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피터 신(공인회계사) 세금보고, Payroll FAFSA/CSS 703-489-7435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2015-16 학기 등록중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Coway/코웨이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원격외선 건조사우나(무릎, 반신) 아네스 황 (팀원 환영) 703-587-6540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의원 인내천 교통사고, 운동사고, 오래된통증 유제운(요셉) 703-642-330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실, 내외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Home Pro Inspection Radon Test, Mold Test Home Inspection 이준형 (안드레아) 571-216-6613
Master Lee's Martial Arts Ashburn Master Lee (요셉) 703-858-7771	재노 오 부동산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윤 조셉 변호사 www.yoonhuff.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협의전문 재판 변호사 703-260-6060	기왕이면 가수처럼 유명 가수들의 기법 전수 양인석 패트릭 노래교실 703-978-5220	Piano Lesson 피아노 전공, 다양한 장르 아동 ~ 성인 703-505-8559	강원모(제노) 부동산 Samson Properties 주택구매 및 리스팅 571-242-9251
오바마 케어 마태오 흥, 소피아 박 703-969-8956 703-969-8954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COLUMBIA COLLEGE 연방정부 학비보조 가능 admissions@ccdc.edu 703-206-0508	ASSA 종합보험 자동차, 주택, 생명, 건강 703-649-211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고해성사: 미사시작 30 분전
유아세례: 짝수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혼인성사: 6 개월전 신청 (교육필요)
병자성사: 위급하기 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주일 11시 40 분 (하상관)
화요일 오후 8 시 (하상관 106호)
예비자나 전입자, 방문자는 성당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여름학기: 매년 6 월에 개강 / 연락처: (703)968-3070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복합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연락처: (703)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사무실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Home Page: www.stpaulchung.org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E-Mail: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김효중 (토마스)